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

미래전문가양성과정(에너지 신산업) 연구과제
국외연수 보고서

2017. 9.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 목 차 ☐☐

I. 출장 개요

- | | |
|------------------|---|
| 1. 목적 | 1 |
| 2. 기간 및 연수단 | 1 |
| 3. 대상국가선정 및 연수방향 | 1 |
| 4. 연수추진과정 | 1 |
| 5. 연수시행 | 3 |

II. 출장 내용

- | | |
|-----------------|---|
| 1. 심천 / 고신경제개발구 | 5 |
| 2. 홍콩 | 6 |
| 3. 싱가포르 | 9 |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 | |
|---------------|----|
| 1. 시사점 (제안사항) | 11 |
|---------------|----|

V. 부록

15

I 연수개요

1 목적

- 국정연구과제(33-스마트시티, 37-미래에너지)에 적합한 전라남도의 미래에너지 신산업발굴을 위한 미래전문가양성과정(신재생에너지)의 선진국가 연수

2 기간 및 연수단

- 2017. 8. 26. (토) ~ 2017. 9. 2. (토) (7박 8일)
- 연수단 : 광양시 김형찬(대표)외 14명(전라남도외 11개시군)

3 대상국가 선정 및 연수방향

- 대상국가 선정
 - 전라남도과 유사한 면적의 국가 또는 도시로서 에너지 관리에 IT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곳으로 선정
 - 홍콩, 중국 심천, 싱가포르
- 연수방향
 - 홍콩 :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 도시에너지 관리의 기반시설
 - 심천 : 중국에너지 산업의 동향,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 싱가포르 : 스마트시티의 실제 적용 사례, 청정에너지 산업육성

4 연수추진과정

- 연수 추진논의 : '17.7.20~21(평창 견학지)
 - 연수국가, 연수일정, 세부계획 확정 등
- 방문지 사전 준비
 - 방문 협조 공문 발송 : 외교부(동남아과장, 동아시아외교과장)
 -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 교육지원과-6284(2017.8.17.)
 - 현지자료조사 : KOTRA 심천지사, 싱가포르 영사관(배준형상무관), 홍콩 영사관(이종석 상무관)
 - ☞ 개별 홈페이지 활용 : 사전 방문협조, 관련절차 문의 등

○ 연수 세부 일정 및 연수 참가자 확정

- 세부일정

방문지	일정	숙박	항공편
홍콩	'17. 8.26 ~ 8.27	1박	인천→홍콩
심천	'17. 8.27 ~ 8.29	2박	
홍콩	'17. 8.29 ~ 8.30	1박	홍콩→싱가포르
싱가포르	'17. 8.30 ~ 9. 1	2박	
홍콩	'17. 9. 1 ~ 9. 2	1박	싱가포르→홍콩→인천

- 연수 참가자

번호	소 속	부서	직 급	성 명
1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공업7급	기경서
2	나주시	교육체육과	공업7급	김병국
3	순천시	경제진흥과	농업6급	김성진
4	완도군	고급면	공업6급	김용식
5	광양시	허가과	행정5급	김형찬
6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공업6급	나상채
7	나주시	혁신도시에너지과	행정5급	노정오
8	진도군	경제활력사업소	공업7급	박주성
9	화순군	산업경제과	행정7급	안준영
10	해남군	환경교통과	공업7급	이승철
11	전라남도	원예연구소	농업연구사	정종모
12	보성군	재무과	행정6급	조승권
13	영광군	의회사무과	행정7급	주석지
14	전라남도	회계과	공업7급	홍석기

5 연수 시행

시 간	방문기관	업 무 수 행 내 용	비고
2017. 8. 26. (토)			
08:40~11:25	인천 국제공항	- 공항집결, 출국전 사전 점검 및 회의	
인천 → 홍콩 (11:25) (14:00)	홍콩 책랍콕 공항	출국 및 현지 도착	
14:00 ~19:00	EMSD (기전공정서)	- 신생에너지 자재검사, 시험성적서 발급등 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 -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과 주변여건 조사	
	홍콩 과학박물관	- 현지인들의 에너지 관련 관심도 파악 - 청소년 및 어린이 에너지 교육 수준 조사	
2017. 8. 27. (일)			
09:00~12:00	호텔대기	태풍 레벨 격상(8호)에 따른 이동제한	MarriottShation
14:00~18:00	홍콩 심천	- 아파트형 소규모 기업방문(보석가공) - 철도역 역사 견학(자연채광) - 심천으로 이동	
2017. 8. 28. (월)			
10:00~13:00	심천 KOTRA	KOTRA 심천지사 방문 -선전시 일반현황 브리핑, 경제여건, 한국기업현화 -중국물류 허브, 물동량, 에너지 기업(풍력) 입주	
15:00~16:00		심천 국제 박람회장 견학 -2017 중국 선전국제신에너지산업 박람회 -8.30부터 시작, 사전관람허용으로 안내관람	
16:00~19:00		심천 시내 전기차 운행 현황 조사, 심천 문화체험 - Smart Car의 혼한 운행 확인(2인용)	
2017. 8. 29. (화)			
09:00~12:00	심천→홍콩	심천에서 홍콩으로 이동 -열차이동,	
13:00~15:00	홍콩 싸이언스파크	홍콩 싸이언스파크 방문 -싸이언스 파크내 기본시설물 조사, 주변여건 조사 -과학연구단지의 종류별 구분, 구획화된 배치 싸이언스 파크 브리핑 -한국영사관의 이중석 상무관 안내 -싸이언스파크 관리센터의 “메리언” / 브리핑 -이중석 상무관의 통역으로 전반에 대한 설명	
15:00~17:00	싸이언스 파크	빅데이터 센터 견학 -빅데이터의 종류, 관리방법, 활용방법 안내 -센터 연구 결과의 홍콩시에 적용 활용사례	

시 간	방문기관	업 무 수 행 내 용	비고
2017. 8. 30. (수)			
05:00~08:00	홍콩	싱가포르 방문을 위한 홍콩공항 이동	
08:45~12:35	싱가포르	싱가포르 창이 공항 도착, 현지가이드 미팅	
14:00~17:00	IT 센터 방문	KOREA IT CooperationCenter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배준형 상무관 안내, 이충현 소장 브리핑 -싱가포르 IT 산업 전반에 대한 설명 -ENGAIN, NOD BIZWARE, JIRANSOFT FORCS SINGAPORE, 12CM GLOBAL, PROMPT	
17:30~19:40	JUBILLE BIIDGE	IT센터 인근 문화탐방 후 숙소이동	
2017. 8. 31. (목)			
10:00~13:00	IExperience 센터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에서 운영하는 IExperience센터 방문 -싱가포르의 4차 산업 대비한 각 분야별 적용사례 전시장 -담당자의 설명, 체험(실내탁구), 신호등, 홈오토등 -Real Time SG Traffic Watch, Green Koncepts -Trakomatic, Educuity, Foodie@2r -Smart is a nation that sparks countless possibilities 주제로 시대별 스마트 적용 장비 전시 설명 - 국가전체 전력망의 집중관리, 각 건물별 소요전력 상시체크, 통계자료(빅데이터)의 철저한 관리	
15:00~19:00	Flower Dome	Flower Dome(식물원 견학) -지열을 이용한 상시온도, 습도 조절 -관람시설 바닥 지열배관 노출, 수평지열배관설치	
2017. 9. 1. (금)			
10:00~16:00	Sentosa Island	Sentosa Island(섬) 전기자동차 운행체험 -섬내부 관광객용 일부 차량의 전기차 운행 -대형차량의 어려움으로 일부만 운행	
18:00~22:40	창이공항	싱가포르→홍콩으로 이동	
2017. 9. 2. (토)			
10:00~13:00	란타우섬	섬 주변 공원 견학 -지중전선로 변압기, 간선 접속점 견학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설치, 안전한 관리 -공원내 애완견 분변 처리용 쓰레기통 별도설치	
홍콩 → 인천 (14:25) (19:05)	책람콕 공항	책람콕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	
19:00~24:00	교육원	교육원 도착 후 해산	

1 심천 / 고신경제개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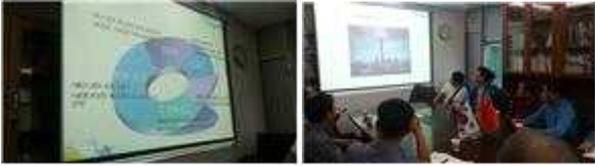
- 집적된 기술, 개방환경 조건을 중심으로 국내의 과학기술과 경제실력을 바탕으로 국외의 첨단기술 자원, 자금 및 관리수단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정된 중국의 국가급 53개 경제개발구 중의 한곳
-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우대정책과 각종 개혁조치의 시행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장점을 최대한 전환기키기 위해 지정한 구역
- 면적 11.5평방 킬로미터로 1996년 9월에 설립된 중국 6대 “세계 일류 고과기원구건설” 중의 하나인 시범원구이다. “중국첨단과학기술단지”와 “중국고신기술산업표준화시범단지”이기도 하다. 과학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신구는 자아창의와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해 왔고 사업생태, 인문생태, 환경생태의 “3태합일”을 조성한 종합환경 조성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으나 우수한 기술력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유치지원으로 중국내 기업 소프트뱅크 역할
- 전세계 전기차 생산1위 BYD(비야디)본사가 심천에 있어 도시전체에 전기차 보급률이 높고 신규차량등록시 가솔린 차량 보다 전기차는 번호판이 즉시 발급됨
- 택시구분(가솔린 붉은색, 전기차 파란색), 아파트 주차장 전기충전시설 의무화, 위챗체이의 다양한 결재(노점상, 음식배달) 등 다양한 적용
-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관공차, 택시, 버스 등을 제작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당(唐), 송(宋), 원(元)등급으로 나눠 생산



당(唐)

송(宋)

원(元)

	
<p>심천 / KOTRA 방문 / 김영석 과장 브리핑</p>	<p>심천 / KOTRA 방문 / 김영석 과장 브리핑</p>
	
<p>심천 / 흔하게 보는 전기차 / SMART CAR</p>	<p>심천 / 2017선전국제신에너지산업박람회</p>

2] 홍콩

○ 사이언스 테크파크

- 기관명(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소속으로 홍콩 사이언스&테크놀로지 파크공사가 운영
- 홍콩을 IT개발의 지역허브로 만들려는 취지로 2001년에 설립된 IT관련 창업육성 산업단지로서 특히 바이오의학, 전자, 녹색산업, ICT 및 정밀공학 등 5개의 핵심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 580여개의 기술관련 업체들이 입주, 11,500명 이상 고용효과
- 단지내 창업보육프로그램, 협업활동, 무정전전원공급, 통신허브, 리셉션, 보안, 사무공간, 레스토랑, 은행, 전시공간, 파크내 교통이동, 엔터테인먼트, 운동시설등을 제공
- 입주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으나 홍콩특별행정구정부장신과기서에 의해 운영되는 혁신과 기술펀드를 통해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 창업보육프로그램 / 전시회참여, 상품출시, 언론보도, 미디어 인터뷰, 비즈니스플랜 컨설팅, 적합한 행사참여 안내 등
- 기술 및 서비스 관련 지원 / 바이오테크 지원센터, 실험실 등
- 사업지원서비스, 비즈니스협업기회들,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

○ EMSD(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 Department)

- 전자 및 기계서비스부(기전공정서), 정부행정부처 중 하나로 전반적인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각종 검사, 에너지관리 정책수립 및 시행
-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 관리 지침 수립 및 시행

☞ 사무실용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실내온도조절)

- 사무실 실내 온도 22℃에서 25.5℃로 조정(냉방부하 48%)
- 조명교체(LED:50%절감) 및 플러그 빼기, 사무실 구조개선,

- 정책적 지원(자금지원)

녹색용지방안	관련 기관	내용
녹색용지계획	홍콩생산성본부, 중국은행(홍콩), 대신은행, 항생은행, 동아은행, HSBC	홍콩 기업에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연기, 환경 관련 생산 기술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자금 지원
녹색기기 구매대출	HSBC (비즈니스 환경보호협회 심사)	에너지/수자원/연료 절약, 폐기물 발생 감소, 대기/토지 오염 방지 등을 위해 환경표준에 부합되는 기기 구매 시 대출금 지원 (홍콩 뿐만 아니라 대륙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기 구매도 해당)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녹색에너지 주민참여

홍콩 건물주들은 실내 냉방 시설비용 절감을 위해 빌딩 옥상에 정원 및 녹지 공간 마련 노력, 튼튼 공장단지의 경우, 건설단계부터 쓰레기 관리와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 지붕 건설을 통한 태양에너지 활용, 자연채광 확대, 비 수집을 통한 수자원 재활용 등을 적용



자료원 : 홍콩환경보호국

- 친환경 상품 개발 및 보급 지원

그린라벨(Green Label) 제품, ‘Green Council’에서는 국제적인 환경라벨 인증제도(ISO 14024)를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격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에 한해 ‘HongKong Green Label’ 부착



- 에너지 라벨 적용



장비 및 기구, 자동차등에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모량 표기, 생산자의 자발적인 에너지 라벨 계획 의무화 에너지라벨이 부착된 제품의 소비자 신뢰감 주어 기업 이미지 제고

자료원 : 홍콩 메트로

<p>홍콩 EMSD 방문</p>	<p>홍콩 과학박물관 견학 / 에너지 제어시설, 노출</p>
<p>홍콩 사이언스 파크 견학 / 이중석상무관, 메리언</p>	<p>홍콩 사이언스파크</p>

3] 싱가포르

○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싱가포르 정부는 07.3월 청정에너지(clean energy)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투자유치,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국내 수요기반 조성 등 3가지 방향에서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음

○ 청정에너지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배경

- 07.3월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과학기술연구혁신위원회 (RIEC: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Council)는 태양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청정에너지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15년까지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S\$17억의 부가가치와 7,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관련 R&D, test-bedding, 파일럿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약 S\$3.5억(약2,4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정책대상으로 삼은 청정에너지는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바이오 연료 등임

- 싱가포르 정부가 청정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삼은 배경에는 고유가, 기후변화 등 최근의 에너지 환경 변화속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로 청정에너지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4대 청정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연료)의 글로벌 시장규모 전망
(06년) US\$550억 → (16년) US\$2,200억 (10년간 4배 성장)

- 특히, 태양에너지는 싱가포르의 기후조건, 발달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반도체, 정밀기계, 재료공학, 화학공학 등) 등을 감안할 때, 청정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태양에너지 세계시장 규모는 07년 US\$3백억에서 11년 US\$1천억으로 성장 전망

○ 싱가포르의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

<첨단기술의 외국인투자 유치>

-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기 보다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발전을

- 피하는 ‘개방형 산업정책’을 경제발전 초기단계부터 추구
- 청정에너지(특히 태양에너지) 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선진기술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Solar cluster*를 형성한다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경제개발청 중심으로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중임
 - * 태양전지/모듈 생산업체, 장비 제조업체, 재료(폴리실리콘/웨이퍼) 생산업체 등 태양발전관련 전후방 산업을 종합 유치함으로써 업체간의 수직적 연계와 시너지를 도모하는 전략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 싱가포르 정부는 청정에너지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향후 5년간 약S\$3.5억(약 2,450억원)을 투입한다는 기본 계획아래, 기초응용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중
 - 기초응용연구 단계에서는
 - ① Clean Energy Research Programme과
 - ② Clean Energy R&D 센터 사업을 통해 청정에너지관련 기초응용연구 과제를 발굴, 지원
 - 시험상용화 단계에서는 Clean Energy Research and Test-bedding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구체적으로 시험,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 Clean Energy Research Programme에는 향후 5년간 약 S\$5,000만이 투입되어,주로 태양에너지 분야의 기초응용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07.10월~08.1월간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신청받았으며, 4월중 심사를 완료하고 연구개발에 착수할 계획임
 - ☞ 정부나 공공기관의 건물, 시설 등을 이용하여 민간이 개발한 청정에너지관련 기술, 제품 등을 적용,시험하도록 하는 Clean Energy Research and Test-bedding(CERT) 프로그램을 07.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S\$1,700만을 투입할 계획임.
- CERT에는 현재 건설청, 주택공사, 국립공원관리청 등 6개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빌딩,시설물 등에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 설비 등을 적용 시험
- ☞ 태양에너지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약 130여명의 대학원생에게 S\$2,500만의 장학금이 지원될 계획이며, 08년부터 청정에너지 학위과정도 개설할 예정임

<국내 수요기반 조성>

- 싱가포르 정부는 태양에너지 설비 보급시책의 일환으로 민간 건축업자들이 건물 신축 또는 개축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Solar Capability Scheme을 시행하고 있음
- 지원범위는 솔라패널 등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의 30~40%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상한액은 1개 프로젝트당 S\$1백만(약 7억6천만원)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민간업자가 신축하는 친환경 건물로서,싱가포르 건설청(BCA: Building & Construction Authority)에서 인증하는 그린마크(Green Mark)의 골드등급 이상을 충족 보조금 지급신청이 가능
- *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디자인, 혁신성, 효과성, 기술적 진전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은 후 결정됨
- * 그린마크(Green Mark) : 싱가포르 건설청이 05.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마크로서, 에너지 효율, 물처리 효율, 건물 내부환경, 환경보호,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평가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여(등급은 Platinum, Gold+, Gold, Certified 등 4단계로 이뤄짐)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시사점

○ 심천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보다는 선진국가나 우수한 기술력을 자국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특구지정 및 입주에 대한 혜택
- 대규모 에너지 소비에 대처하기 위한 53개 지정 특구별 에너지 정책을 개별로 시행(에너지 관련 기업 우대)
-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스마트 자전거 정책 시행 중이나 중국문화 특성상 신생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

동호회 / 자전거 동호회 2200여개, 애호가 수 2000만명, 이용계층 주링허우(90년대 출생장)

대회 / UCI 경기 최다 주관국가, 매년 3,000회 이상, 투어칭하이 레이크 레이스, 하이난 국제사이클 대회
스마트 자전거 /2가지(사이클링 기록,전기동력), 700Bike(내부전자모돌 실시간 운동기록),Begin One(전기모터)

○ 홍콩

- 도시전체가 하나의 관광특구이며 세계각국의 무역상이 모여있어 에너지 소비가 최대인 지역이나 높은 습도와 온도로 관광상품 판매점의 냉방 실내온도는 24℃이하, 출입문 열어놓기 등으로 행정부의 정책에 역행
- 전기에너지의 대부분은 중국대륙으로부터 공급, 저렴한 전기요금, 중국정부의 정책적인 배려 등으로 협소한 공간에 비해 에너지 소비에 큰 지장을 받고 있지 않음
- 도시전체 전력공급망의 지중화로 전력손실율이 높으나(가공선로의 1.5배) 도시미관을 살려 관광객 유치에 위함
-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지역활성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함

○ 싱가포르

- 깨끗한 도시환경, 법질서의 엄격한 적용 및 준수, 높은 소비자 물가 에너지 소비의 도시집중 등 우리와는 다른 점이 많은 국가
- 협소한 국가 면적을 고려 IT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의 대부분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의존(전기, 물)하고 있으나 홍콩과 유사하게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관광에 의존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가 많았음
- 도시계획단계에서 스마트 시티를 각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나 IoT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무선 와이파이 공유 제한)
- **IXperience센터**를 통한 국가차원의 적극지원으로 다양한 스마트 시티 관련 다양한 종류의 기술개발로 대부분 적용단계에 있음

V**부록**

1. 심천
2. 홍콩 개황
3. 홍콩 역사
4. 싱가포르 개황 - 1
5. 싱가포르 역사 - 2
6. 싱가포르 사회 - 3

부록 1

고신 경제개발구(심천)

○ 중국의 경제개발구 형태

- 지정급 : 국가급 개발구, 성급 개발구, 시, 현급 개발구
- 기능별 :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보세구, 수출가공구, 경제합작구 등

○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집적된 기술, 개방환경 조건을 중심으로 국내의 과학기술과 경제실력을 바탕으로 국외의 첨단기술 자원, 자금 및 관리수단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우대정책과 각종 개혁조치의 시행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 성과를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최대한 전환시키기 위해 지정한 구역

☞ 중국 경제개발구 지정 : 국가급 53개소

○ 심천 고신경제개발구

기획면적은 11.5평방 킬로미터로 1996년 9월에 설립된 중국6대 "세계일류고과기원구건설" 중의 하나인 시범원구이다. "중국첨단과학기술단지"와 "중국고신기술산업표준화시범단지"이기도 하다. 과학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신구는 자아창의와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해왔고 산업생태, 인문생태, 환경생태의 "3태합일"을 조성한 종합환경을 가지고 있다.

"대담하게 모험하고, 용감하게 창업하고, 실패를 관용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개방을 포용하고, 경쟁을 숭상하고, 충만한 걱정과 경박함을 경계하는" 창의적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주소 / The Southern District of Shenzhen high tech Zone of Nanshan District City, nine South Road

홈페이지 / <http://www.szsti.gov.cn/>

부록 2

홍콩 개황[概況]

※ 출처 : 주 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 명 칭 :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 H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인 구 : 737만('16년)
- 언 어 : 광둥어 88.7%, 영어 3.1%
- 홍콩특별행정구 출범 : 1997.7.1
- ※ 영·중 공동선언('84.12월)에 의거 홍콩 주권 중국으로 이양
(정치현황)
- 정치상황
 -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하 고도자치 향유 / 행정·입법 및 사법권(외교·국방 제외)
 - ☞ 행정부 (The Executive Authority)
 - 행정수반(Chief Executive) : 홍콩 최고책임자, 임기 5년, 1차연임 가능
 - 現 행정수반: Carrie Lam(林鄭月娥) '17.7.1 제5대 행정수반으로 취임
 - ☞ 입법부(Legislative Council)
 - 의원 수 70명, 임기 4년('12.10.1- '16.9.30)
 - 입법회 의장 : 앤드류 령(Andrew Leung Kwan-yuen, 梁君彥)
 - ☞ 사법부(The Judiciary)
 - 지방법원·고등법원·중심법원의 3심제
- 경제현황
 - 국내총생산('16년) : 3,191억 미불
 - 1인당 국내총생산('16년) : 43,400 미불
 - 경제성장률('16년) : 1.9%
 - 교역액('16년말) / 수출 5,580억 미불, 수입 5,880억 미불
 - 외환보유고 : 3,862억 미불('16년말)
 - 실업률 : 3.4%('16년말)
 - 화 폐 : 홍콩달러(HK\$), US\$1=7.75~7.85HK\$
- 한국과의 관계
 - '49. 5월 영사관 개설
 - '49.11월 총영사관 개설
 - ※ 북한은 2000.2월 총영사관 개설

※ 출처 : 주 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 1842년 청나라, 남경조약에 의거 홍콩섬을 영국에 영구할양 (1840~42년간 아편전쟁후)
- 1860년 청나라, 북경조약에 의거 구룡반도(Boundary Street 이남)와 Stone Cutter 섬을 영구할양 (Arrow호 사건 계기 1856~60년간 제 2차 아편전쟁 후)
- 1898년 제2차 북경조약에 의거 신계지 및 235개 부속도서 99년간 (1898.7.1~1997.6.30) 조차(청일전쟁 계기, 영국이 홍콩 방위 목적으로 교섭 결과)
- 1941.12-45.8 일본의 홍콩점령시기
- 1946년 홍콩 총독부 재수립
- 1967년 홍콩 총독부를 홍콩정청으로 개칭
- 1979. 3 Murray Maclehoze 홍콩총독, 중국정부초청 방중(영국측, 홍콩 반환문제 처음 제기)
- 1981. 3 영국의회, 국적법 개정 (홍콩주민의 영국이주 방지 목적)
- 1982. 9 후야오방(胡耀邦)의 홍콩주권 회복 선언
- 1982. 9 Thatcher 영국수상 방중 및 영·중 협상 개시
- 1983. 6 중국 ‘항인치항(港人治港), 제도불변’ 원칙 선언
- 1983. 10 홍콩달러의 대미블 고정환율제(Peg System) 채택
- 1984. 7 덩샤오핑(鄧小平)과 Geoffrey Howe 영국외상 회담결과, 1997년 주권 회복후 50년간 현 체제유지를 골자로 하는 예비협정 체결
- 1984. 12 Thatcher 영국수상과 자오쯔양(趙紫陽) 총리간에 ‘홍콩문제에 관한 영·중 공동선언(협정)’ 정식 서명(12.19)
- 1985. 5 ‘영·중 공동선언’ 비준서 교환 및 공식 발효(5.27)
 - ※ 천안문 사태 발생(1989.6월)
- 1990. 4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Basic Law)’ 제정(중국 전인대 통과)
- 1992. 10 Patten 총독, 정치 개혁안 발표
- 1993. 7 중국, 특구준비위원회 예비실무위(PWC) 발족
- 1995. 6 영·중간 홍콩내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 설치 및 신공항 건설자금(203억 미불) 조달방안 합의
- 1995. 12 특구준비위 예비실무위(PWC) 활동 종료 및 해체
- 1996. 1 150인 특구준비위(PC) 발족
- 1996. 11 400인 추천위 구성

- 1996. 12 추선헌, 초대 특구행정수반 선출(12.11) 및 60인 잠정입법의원 선출(12.21)
- 1997. 7. 1 중국 주권회복, 홍콩특별 행정구 설치
 - 통치화(Tung Chee Hwa, 董建華) 97.7.1 제1대 행정수반으로 취임
- 2002.7~05.3 통치화(Tung Chee Hwa, 董建華) 제2대 행정수반으로 취임 후, 임기만료 전 사임
- 2005. 3 도널드 창(Donald Tsang, 曾蔭權) 행정수반 서리 취임
- 2005. 5 헨리 탕(Henry Tang, 唐英年) 행정수반 서리 취임
- 2005. 6 도널드 창(Donald Tsang, 曾蔭權) 보궐선거에서 당선(잔여임기)
- 2007. 7 도널드 창(Donald Tsang, 曾蔭權) 제3대 행정수반으로 취임
- 2012. 7 령춘잉(Leung Chun-ying, 梁振英) 제4대 행정수반으로 취임
- 2017. 7 캐리 램(Carrie Lam, 林鄭月娥) 제5대 행정수반으로 취임

※ 출처 : 주 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체제**

- 시장질서에 기초한 무역·금융 등 서비스산업이 고도로 발달
- 민간기업의 경제활동 자유 및 외환의 자유이동 보장
 -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및 헤리티지재단 공동조사, ‘경제자유도 지표(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홍콩은 연속 23년간(1994~2016) 1위 차지

○ **단순하고 낮은 세율의 조세 체계**

- 홍콩에는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양도소득), 증여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음.
- 세관에서 알콜농도 30% 이상의 주류, 담배, 연료유, 메틸알콜 등 4개 품목의 수입·생산에만 물품세(excise tax, 貨物稅)를 부과하며, 정책상 관리필요 품목 및 마약 등 수출입 금지품목만 엄격관리
- 홍콩은 내외국인 및 내외국기업 구별 없이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 부과 따라서 홍콩에 상주하는 기업·개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외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홍콩의 3대 세목(稅目)은 ①이윤세, ②급여소득세, ③인지세로서, 2016/ 2017 회계년도 3대 세목의 합계가 전체 세수의 50%를 차지

○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대외의존도**

- 높은 서비스산업 비중 : 92.7%(‘16년)
- 금융·보험·부동산·전문서비스업(27.5%), 수출입 및 도소매유통업(24.1%), 공공행정 서비스 등(17.2%), 운수·창고·우편·배송서비스업(6.2%) 등이 전체 GDP에서 75%를 차지
- 건설업(4.4%), 제조업(1.3%)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

< 홍콩의 주요 산업별 GDP 비중 >

	금융·보험·부동산 등	수출입·도소매	공공행정 서비스	운수·창고·우편	건설	숙박·요식	정보통신	제조	기타	합계
비중(%)	27.5	24.1	17.2	6.2	4.4	3.6	3.5	1.3	12.2	100.0

자료 : 2016 Economic Background by HKSAR

- 홍콩 정부는 2009년부터 6대 전략산업 지정, 적극 지원
- 6대 전략산업은 문화·창의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혁신기술산업, 검·인증산업,

- 환경보호산업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7.5%에서 2010년 8.4%로 증가
- 상품 교역량이 GDP의 305% 수준(수출 144%, 수입 161%)으로 높은 대외의존도

○ 아시아의 국제금융중심

- 홍콩은 동경,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최대 국제금융중심의 지위를 다투고 있으며, 중국 투자를 위한 국제자금조달센터 역할도 담당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은 주로 미국계, 유럽계로 국제 자본이 자금의 수요처를 찾아 홍콩으로 이동하여 투자 또는 대출되는 형태
-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어 효율성이 높고 대출 비용이 낮아 아시아 각국과 중국의 차입 센터 기능 수행
 - ※ 外換市場의 일평균거래량이 US\$ 2,900억 달러(13.4월 BIS조사 기준)로 세계 5위 차지
 - ※ 株式市場은 市價總額(Market Capitalization) 기준으로 US\$ 3조1,680억(16년말)으로 세계 6위 규모이며, 상장기업 수는 1,973개임
- 최근에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역외 위안화 중심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음.
 - 홍콩은 2004년부터 역외위안화 센터 육성을 추진하여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위안화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안화 대출·자산관리 센터로 지속 발전
 - 2016년말 기준, CD를 포함한 위안화 예금은 전년 대비 35.8% 감소한 RMB 6,251억 위안을 기록
 - 위안화 투자펀드·보험·통화선물·부동산투자신탁·파생상품 등 다양한 위안화 투자 상품도 제공되고 있다.

○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홍콩 내 외국기업의 활동이 다소 주춤했으나, 2010년 이후 외국기업의 홍콩 지사 설립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아시아지역본부(2016) : 1,379개사

○ 중국 본토와 경제 통합 가속화

- 2003년 6월 중-홍콩 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및 10개 보충협정 체결, 선전 첸하이, 주하이 형친(橫琴), 광저우의 난사(南沙)와 홍콩을 연계하는 주강삼각주(Pearl River Delta) 지역 경제통합, 홍콩 금융기관의 위안화 영업 허용 및 중국기업의 홍콩거래소 상장 등 중국 본토와의 경제 관계 심화

부록 5

싱가포르 개황(概況)

※ 출처 : 외교부 누리집 > 국가 및 지역 정보

- 국가명 :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
-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 면 적 : 718km²(서울시 605.5km²)
- 일반사항
 - 인 구 : 553만 명(2015년 6월 기준)
 - 민족구성 : 중국계(74.2%), 말레이계(13.3%), 인도계(9.2%), 기타(3.3%)
- 종 교 :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
- 언 어 : 영어(통용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 시 차 : 우리나라와 1시간 차이

- 싱가포르 지도



부록 6

싱가포르 역사(略史)

※ 출처 : 외교부 누리집 > 국가 및 지역 정보

○ 연표로 본 싱가포르 역사

	1824	영국 동인도회사, 싱가포르 영구 할양
	1942	일본의 식민 지배
영국 식민지로 환원	1946	
리완유 초대총리 취임	1959	싱가포르 자치정부 구성
	196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연방 편입(9.16)
	1965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독립(8.9) 및 헌법 개정(국명 싱가포르 공화국) 유습 빈 이삭 초대 대통령 취임(12.22)
	1967	ASEAN 결성
	1970	유습 빈 이삭 대통령 서거
	1971	벤저민 시어스 제2대 대통령 취임 영국 극동사령부 폐쇄
	1981	벤저민 시어스 대통령 서거 C.V. 드반 나이르 제3대 대통령 취임
	1985	C.V. 드반 나이르 대통령 사임 위킴위 제4대 대통령 취임
고속층 제2대 총리 취임	1990	
중국과 국교정상화	1991	헌법 개정, 대통령 직선제 채택(6년 임기)
	1993	대통령 선거 실시, 응뎃청 제5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1999	S.R. 나단 제6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2003	말레이시아와 페드라 브랑카섬 영유권 분쟁 ICJ 공동 회부
리선동 제3대 총리 취임	2004	
	2005	S.R. 나단 제7대 대통령 재선 및 취임
리선동 신내각 출범	2011	토니 탄 제8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리완유 고문장관과 고속층 선임장관만 내각에서 퇴장)		

부록 7

싱가포르 사회

※ 출처 :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 싱가포르 사회

번호	제 목	등록일	비고
1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인종 사회	2012. 3. 12.	3 page
2	Garden City의 관광 진흥 정책	2012. 3. 12.	5 page
3	엄격한 법 집행	2016. 1. 5.	6 page

1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인종 사회
---	------------------

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

2010년 말 기준, 508만 싱가포르 인구 중 377만 명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고 131만명이 외국인이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중국계 74%, 말레이계 13%, 인도계 9%로 구성된다. 이외에 유럽인과 현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유라시안계도 일부 있다. 따라서 종교 역시 불교(33%), 기독교(18%), 이슬람교(14%), 도교(10%), 힌두교(5%)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주거는 물론 요리, 쇼핑, 문화 등 측면에서 싱가포르의 곳곳에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다양한 인종 구성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식민지 시절부터 시행된 싱가포르 이민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립 후 리관유 정부는 다문화 속에서 국민적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1965년 제정된 싱가포르 헌법은 각 인종 간 평등주의를 명시하고 영어 이외에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였으며, 각 종교 별로 균등하게 법정 공휴일을 지정토록 규정하였다.

싱가포르의 총리를 비롯하여 다수 각료가 중국계이다. 이는 싱가포르 인구의 다수가 중국계인데다 리관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국계 엘리트들이 건국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경우는 말레이·인도·중국계를 돌아가며 배출되기도 하였고 각료급 임명 시에도 가급적 인종별 분포를 반영하여 인종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영 아파트(HDB)의 경우에도 각 인종별 인구 비율에 따라 분양함으로써 특정인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싱가포르의 이중언어(Bilingualism) 정책 >

독립 후 싱가포르 정부는 다인종 사회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지에 대해 고심한 결과, 어느 인종이나 종파와도 무관한 영어를 공용어로 정했다. 세계 공통어인 영어는 싱가포르를 세계와 연결시켜 주었고 중국어는 중국·대만·홍콩 등 중화권과의 교류를 가능케 했다. 이러한 언어정책이 싱가포르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리관유 전총리는 2011년 싱가포르의 이중언어 정책을 다룬 *My Lifelong Challenge - Singapore's Bilingual Journey* 라는 자신의 저서 출판 기념회에서 1억싱불의 기금을 마련, 취학 전 아동들의 언어 습득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때 가진 기자회견에서 리관유 전총리는 싱가포르 독립 당시에 싱가포르인들이 대부분 영어를 구사할 줄 몰랐고 중국어 방언, 말레이어, 타밀어 등 제각기 다른 언어를 쓰면서 어항 속 물고기들처럼 떼지어 몰려다니며 살았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언어능력은 유아 때부터 10-12세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발전하는 만큼,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언어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가정에서 한쪽 부모가 자녀들과 영어로 대화하면, 다른 한쪽 부모는 중국어나 말레이어 등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중국계>

중국계는 영국 식민지 시절 주로 푸젠, 광둥, 하이난 등 중국 남부지방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중국 남부의 영향이 크게 남아있다. 싱가포르 중국계의 대중적인 음식인 호키엔미, 치킨라이스 등도 원래는 중국 남부지방 음식으로서 현지화된 것이다. 근래에 들어 중국 본토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한편 중국어를 못하는 중국계도 있다. 대신 영어나 말레이어를 쓰는데 이들은 ‘해협인(the Straits Chinese)’, 혹은 말레이어로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의 ‘페라나칸(Peranakan)’이라 불린다. 이들은 16세기 말라카에 정착한 중국 상인들의 후손들인데 말레이계와의 혼혈이 많다.

<말레이계>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말레이계 사람들의 99%는 이슬람교도이다. 싱가포르 말레이계는 말레이시아 본토나 인도네시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많다. 말레이계 이슬람교도들은 금식월(Ramadan)을 지키며 금식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날인 하리라야(Hari Raya Aidilfitri)를 가장 큰 명절로 지킨다. 이날에는 흠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종교가 다른 이웃들에게도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관습(Rumah Terbuka)이 있다. 또한 대통령궁(Istana)에서도 국민들에게 무료 입장을 허용하고 말레이 전통음악과 댄스 공연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사우디 메카로 성지순례를 다녀 온 것을 기념하는 날인 희생제(Hari Raya Haji)도 명절로 지키고 있으며 수천마리의 염소와 양들이 희생 제물로 사용된다.

<인도계>

싱가포르의 인도계는 인도 타밀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인도계’라는 말은 상당히 광범위한 말로, 다양한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포괄한다. 인도계 사람들의 절반 가량은 힌두교도이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으며 일부는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이다. 언어도 대개 타밀어를 쓰지만 영어, 말레이어도 능숙하게 구사한다. 인도계는 관계, 학계, 법조계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에는 인도 본토에서의 이민자들이 전문직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만한 크기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는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한다. 싱가포르는 Garden City라고 불릴 정도로 가로수도 아름답게 정비하고 국토 전체를 건축물과 어울리게 잘 꾸며 놓았다. 하지만 역사가 일천하고 주목을 끌만한 명소가 없어서 관광 여건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싱가포르가 관광 대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 숨어 있다.

우선 싱가포르는 자타가 공인하는 쇼핑도시이다. 매년 5~7월에는 주요 대형 소매상들이 큰 폭의 가격 인하를 단행하는 대규모 세일 행사인 'Great Singapore Sale'이 열린다. 싱가포르 전역에서 실시하는 이 세일 기간에는 전국의 상점들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쇼핑객들을 유혹한다.

최근에는 카지노 산업도 급부상 중이다.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불허해 왔으나, 2005년 카지노 사업을 허가하였다. 2010년 2월 Resort World Sentosa(RWS) 카지노가 개장했고, 그 해 4월 Marina Bay Sands(MBS)에 또 하나의 카지노가 개장했다. 카지노 리조트 개발과 함께 향후 10년 내에 외국인 관광객을 연간 1,700만 명 가까이 유치해 관광산업 부흥을 유도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도박중독 및 조직범죄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지노 개장에 있어서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내국인이 카지노에 출입하려면 일일 100싱불의 입장료를 내야한다. 도박을 끊기 힘든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도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 카지노 출입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족과 같은 제3자도 출입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이처럼 대규모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건설해 고부가가치의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마리나베이샌즈 호텔과 센토사 리조트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리조트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또한 잘 갖추어진 의료시설을 바탕으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매년 40만 명 이상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온 외국인 환자들은 대개 2주 가량 머무르는데 평균적으로 의료비 외에도 약 1만 미불을 지출한다고 하니 관광수입 증대에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병원, 호텔, 쇼핑몰이 결합된 복합병원을 건설하여 외국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인 Formula One 대회를 2008년부터 유치하고, Barclays Open 등 PGA 골프대회도 유치하고 있다. Formula One 대회는 야간에 도심에서 개최되는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류층 외국인들이 대거 방문하여 관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되는 이벤트들을 유치하여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이 싱가포르 관광정책의 특징이다.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껌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과거에는 껌의 반입조차 금지되어 있었으나, 2004년 ‘껌 금지법’ 이 일부 개정되어 금연용과 치과 치료 보조용 껌은 판매되고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구입할 수 있다. 쓰레기를 길에 버리다 적발되면 300 싱불의 과태료(약 27만원)가 부과되며 2회째 적발되면 벌금은 2배로 높아진다.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여행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싱가포르는 담배나 마약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하기로 유명하다. 싱가포르는 1991년 이래로 담배 반입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일체 면세가 허용되고 있지 않아 입국 여행객은 본인 소비를 위한 담배라 할지라도 입국 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한 갑당 약 200싱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마약 소지, 운반 등 마약 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5g 이상의 마약(헤로인 기준)을 반입, 반출 또는 밀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이 구형된다. 범죄와 관련된 법은 모든 시민과 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과거 호주인과 나이지리아인이 마약을 밀거래하다 사형을 선고받자 양국 정부가 친서를 보내어 자비를 호소하였으나, 싱가포르는 마약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사법제도에에는 태형도 포함되어 있다. 태형은 강도, 인질, 마약, 폭동, 반사회적 행위, 마약거래, 불법체류 등의 죄를 범한 18-50세의 남성에게 한해 금고형과 함께 집행된다. 태형에 사용되는 회초리는 물에 불려 탄력성을 높인 등나무로 제작된다.

싱가포르의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이구동성으로 인정한다. 이것은 싱가포르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간에 공통된 법 인식의 바탕이 부족하므로 강행규범이 다소 지나치더라도 질서와 청결, 그리고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치안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이다.

< 태형(Caning) 집행 사례 >

93년 가을 미국인 학생 Michael P. Fay(당시 18살)가 주차된 자동차 6대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반사회적 훼손 행위(Vandalism)로 체포되었으나, 누우치지 않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여 94.3월 금고 4개월, 벌금 3,500싱불, 태형 6대를 언도받았다.

미국에서 어린 학생에 대한 태형집행이 가혹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미 Clinton 대통령은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싱가포르 Ong Teng Cheong 당시 대통령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태형을 6대에서 4대로 감해 줬을 뿐 싱가포르 정부 당국은 미국 정부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태형을 집행하였다.